



민선 8기 해결을 기대한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논의가 계엄,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광주시가 '새판짜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공군이 11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광주공항 활주로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오리무중'... 새판짜기 들어가나

범정부 협의체 개최 앞두고 계엄·제주항공 참사...논의 무기 연기
관광업계 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요구...강시장 "창의적 고민 필요"

민선 8기 해결을 기대했던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논의가 안갯속으로 빠져들면서, 광주시가 '새판 짜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정부 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무안공항 이전을 전제로 2년간 협상을 이어왔던 김영록 전남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 등이 겹치면서 민간·군 공항 무안 이전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기한 중단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7면>
특히 최근 도산 위기에 처한 광주 관광업계 등을 중심으로 광주공항 국제선 개항 요구까지 거세지면서, 광주시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지난해 연말을 마지노선으로 전남도와 무안군에 '의미 있는 군 공항 이전 해결'을 제시했던

강기정 시장이 '플랜 B(차선책)' 가동에 나서는데 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1일 광주시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운영에 대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9재(2월 15일) 이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 5일 "무안공항이 언제 다시 문을 열지도 불확실하고 설령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광주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지 또한 문제"라면서 "통합 논의가 원점 재검토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다시 한 번 창의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가 됐다"며 '플랜 B' 가동을 시사했다.

이 같은 강 시장의 입장 변화는 군 공항 이전에 비협조적인 무안군의 강경한 태도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낼 때마다 발생하는 여러 약재와도 무관하지 않다.
우선 지난해 12월 13일로 예정됐던 광주시가 가장 기대를 건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 회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기한 연기된 게 결정타가 됐다. 무안군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범정부 협의체 구성까지 이끌어 냈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비상계엄 사태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공항이 임시 폐쇄되고, 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 관광업계와 광주상의 등을 중심으로 광주공항의 임시 국제선 개항 요구까지 이어진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무안공항 운영이 10월까지 중단돼 지역 여행과 항공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역 여행업계 위기

극복과 지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광주공항 국제선의 한시적 운영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시 관광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호소문을 통해 "무안공항을 포기하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코로나19로 고통받은 3년을 지나 또다시 찾아온 이 위기를 이겨내야만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올해가 '광주 방문의 해'이고, 오는 9월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열려 임시 국제선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지역 여론인 광주공항 국제선 개항 요구 등을 받아들인다면, 민선 8기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사업 '새판짜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다만 수년간 공 들여온 민간·군 공항 이전 사업을 수정하는 '플랜 B' 가동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실제 실행에 옮길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특히 2023년 4월 광주시와 함께 쌍둥이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킨 대구시가 최근 국방부에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관한 사업 계획을 승인 받는 등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광주시의 계획 수정에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강수훈(민주·서구1) 광주시의원은 "일단 광주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플랜B가 무엇 인지는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본다"며 "사실상 올스톱된 현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광주시의 '전략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공항 활주로 길이는 2835m(2분)로 이론적으로는 중형 기종을 활용할 동안야·하와이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실제 2007년까지 일본과 동남아 등지를 운항하는 정기편과 전세기까지 이·착륙했으며, 같은 해 11월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국제선 기능을 넘긴 상태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는 이상민, "단전·단수 쪽지는 봤다"

현재 탄핵 심판 7차 변론

헌법재판소 증인석에 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내용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 전 장관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일부 언론사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 자체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현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계속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에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의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대통령으로부터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계엄을) 만류하러 들어갔을 때, 1-2분 머무를 때 떨어뜨리게 된 것"이라며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소방청장과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부인했다. 그는 "이후 각종 시위나 충돌은 없는지 그런 상황 전반이 궁금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차례로 전화했다"며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그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만 한 것"이라고 했다.
그의 이날 증언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과는 상반된 증언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 이 전 장관을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장관을 대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고, 밤 11시 37분께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밤 12시께 특정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 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그는 비상계엄 절차에 해당하는 국무회의는 진행됐지만, 국무위원들이 만류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국무회의의 주관부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유효하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계엄 당일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계엄선포를 30분 가까이 늦추면서 의사정족수(11명)가 되길 기다렸다"면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장관 증인신문 도중 윤 대통령은 재판부에 "남은 시간 1분 50초만 (이 전 장관에게 직접) 물어도 되겠느냐"고 물었지만, 문형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리인을 통해서 하라"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귀화 선수 예카테리나 바이애슬론 김

전남 바이애슬론팀의 러시아 귀화 선수 예카테리나(사진) 암바주 모바가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며 새 역사를 썼다.
<관련기사 19면>
예카테리나는 11일 중국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바이애슬론 종목 여자 7.5km 스피린트에서 22분 45초 4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정상에 올랐다.
한국 바이애슬론이 아시안게임에서 거둔 최고 성적은 2003년 아오모리 대회에서 획득한 남자 계주 은메달이었다.
러시아 벨리키 우스투키 출신인 예카테리나는 2016년 특별귀화 후 한국 대표팀에 합류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여자 15km 개인 경기에서 16위를 기록하며 한국 여자 선수 중 최고 성적을 남긴 바 있다.
한편, 예카테리나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



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전남 바이애슬론 선수단과 함께 또 한번의 메달 사냥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당신의 다음 클래스를 향해,
그리고 당신의 여유로운 삶을 향해

The new EQA & EQB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암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종 초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A 2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5(도상: 5.4, 고속도로: 4.6) 1회 충전거리(km): 367, 공차중량(kg): 1985, 배터리 용량(kWh): 65.9
EQB 30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4.1(도상: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302, 공차중량(kg): 2135, 배터리 용량(kWh): 65.9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